

박태환·펠프스·해켓 수영 '빅뱅'

Beijing 2008

D-1



박태환 10일 자유형 400m 금메달 노려
펠프스 8관왕·해켓 1,500m 3연패 도전

국내에서 대표적 비인기 종목 가운데 하나인 수영은 올림픽에서 만큼은 최고의 인기 종목이다. 2008 베이징올림픽 수영 입장권은 일찌감치 매진됐다. 그만큼 주목해야 할 스타가 많다는 뜻이다.

한국 팬들의 시선은 첫 금메달을 노리는 박태환(19·단국대)의 경기에 집중돼 있지만 만평인 영장인 워터클럽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을 예약하고 있는 스타들은 새 역사를 쓰기 위해 막판 훈련에 여념이 없다.

가장 주목해야 할 스타는 바로 마이클 펠프스(미국)다.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대선배 마크 스피츠가 세운 단일대회 수영 7관왕을 넘어 8관왕을 노리고 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종전 대회까지 6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펠프스는 앞으로 4개만 추가하면 '미국 육상의 전설' 칼 루이스 등이 보유한 올림픽 통산 최다 금메달인 9개를 넘어 새 역사를 쓰게 된다.

박태환의 라이벌인 그랜트 해켓(호주)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선수 가운데 한 명. 2000년 시드니 대회와 2004 아테네 대회에서 연달아 자유형 1,500m 타이틀을 거머쥔 해켓은 베이징에서도 1,500m 금메달을 차지하면 남자 수영 선수로는 처음으로 3연패를 이루게 된다.

육상에서 100m 우승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듯이 수영에서도 남자 자유형 100m 금메달을 누가 차지할까에 시선이 몰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박태환〉



마이클 펠프스



그랜트 해켓

신안 대광해수욕장 백사장서 9일 승마대회

마상 무예공연·미인사진대회도

9일 신안군 임자도 대광해수욕장에서 '해변 승마대회'가 개최된다.

지역스포츠산업의 활성화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대회는 전남도와 신안군이 공동 개최하며,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영복을 착용하고 해변을 따라 달리는 해변

승마 시범과 전통마상무에 기술을 재현

하는 마상 무예 조정 공연이 펼쳐진다.

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 참가자들에게 2km 해변 승마 체험의 기회가 주어지며,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병승마 미인 사진촬영 행사 등도 마련된다.

임자도 대광해수욕장은 12km의 긴 해변을 자랑하고 있어 해변승마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레슬러 역도산 외손자

고시엔 대회 승리투수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역도산(한국명 김신락)의 외손자가 일본 고교야구 고시엔 대회에 투수로 출전해 팀의 46년 만의 첫 승리를 견인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6일 일제히 보도했다.

가나가와현 게이오 고교의 2학년 좌완 앤

이스 다무라 게이(18)는 5일 효고현 고시엔

구장에서 열린 제90회 고시엔 여름대회 1회

전 마쓰쇼 학원과의 경기에 선발 출장, 팀의

6-4 승리를 이끌며 승리투수가 됐다.

게이오 고교는 이로써 46년 만에 고시엔 대회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특히 마쓰쇼 학원은 고시엔 대회에 사상 최다인 35번째 출장한 명문팀이어서 게이오의 승리는 더욱 화제를 불러 모았다.

다무라는 1963년 역도산이 괴한의 흥기에 뛰려 숨진 직후에 태어난 막내 딸 다무라 히로미(44)씨의 아들로 186cm의 당당한 체구에 최고 시속 143km의 직구와 슬라이더 등 다양한 변화구를 자랑한다. 역도산의 외손자로 부각되는 점에 부담을 느끼 '역도산의 외손자'가 아니라 '게이오의 다무라'로 불릴 수 있도록 멋진 활약을 보이겠다고 각오를 다렸던 다무라는 결국 자신의 말대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일본 언론을 장식한 셈이다.

KIA 가을잔치 참여 여부는

한방·허리·핫코너에 달렸다

〈홈런포〉〈중간계투〉〈내야수비〉

지난달 31일 전반기가 끝난 후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지난 4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훈련을 재개했다. KIA 선수단은 '한방·허리·핫코너'의 세 가지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고 오는 25일 까지 빠빠한 훈련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KIA는 타선과 마운드의 부실한 허리 탓에 4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6위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공격의 키워드는 '한방'이다. 결국 김선빈은 전반기 막바지 유격수 자리를 이현근에 내주었고, 3루는 김주형이 대신했다.

부상과 부진으로 한방 있는 중심자

장성호·최희섭·이재주가 2군을 오르내

리면서 공

격력의 무

계가 그만

큼 떨어졌

다. 팀 내 최

고 훈련은

이제 주가

기록한 10

개, 가뭄에

콩 나듯 터

지는 훈련으로 부문 최하위(37개)를 달

리고 있는 KIA는 2달 여만의 복귀 후 부

쩍 안정된 최희섭의 어깨에 거는 기대가

크다.

중간계투진의 부진도 속을 태운다.

KIA는 유퇴민·이범석·이대진·다이

즈·데이비스로 이어지는 '마운드의 힘'

으로 전반기를 버텼다.

서재웅의 복귀도 수월할 것으로 보여 선발진의 구성을 더 촉촘해질 전망이다. 문제는 철벽 마무리 한기주와 막강 선발진을 이어줄 중간계투진이 미망지 않다는 것이다. 경험 부족을 노출한 신예 투수들 틈에서 노련한 유동훈은 과부하가 걸려 전반기 막판 힘이 떨어진 모습이다.

조범현 감독은 양현종과 임준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임준혁은 시즌 중반

최희섭에 '결정적 홈런' 기대

양현종·임준혁 중간계투 맡겨

내야수비 김선빈·김주형 어깨에

부상병동의 대타 선발로 나서 자신의 진

기를 발휘했고, 양현종은 전반기 마지막

4경기에서 6과 3분의 1이닝을 3피안타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막으며 상승세다.

경기 분위기를 뒤흔들던 불안한 내야

는 김주형과 김선빈의 어깨에 달렸다.

발데스의 퇴출로 유격수 주전 자리를

꿰찬 김선빈은 매서운 타격과 야구 센스

로 주목을 받았지만 팀 폐쇄와 직결되는

실책이 많았다. 결국 김선빈은 전반기

막바지 유격수 자리를 이현근에 내주었고, 3루는 김주형이 대신했다.

어수선한 내야에 이현근도 유격수와

3루를 오가며 고전하고 있다. 전지훈련

때부터 몸

이 좋지 않

았던 이현

곤은 전 경

기를 뛰다

시파하며

체력 적인

부담을 호

소하고 있

다. 지난해

타격왕 이현곤의 타율이 0.265 며무는

등 미망한 내야 대안이 없어 수비·공격

모두 부담감을 안고 있다. 조범현 감독

은 올림픽 휴식기 동안 루키 김선빈의

수비 가다듬기와 김주형의 집중력 높이

기애 조짐을 맞추고 내야 재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KIA는 26일부터 재개되는 프로야구

경기에서 최하위 팀 LG와의 주중 3연전

에 이어 우리와의 주말 3연전을 갖는다.

하반기 첫 주말 사직에서는 4·5위 다툼

을 하고 있는 롯데와 삼성이 맞붙게 된

다.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4강의 윤곽이

완성될 수도 있는 대진표다.

약체 LG, 우리를 발판으로 4강을 꿈꾸는 KIA의 하반기는 세 가지 키워드에

그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7일(목)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요코하마〉(17 : 45·SBS스포츠)

8일(금)

▲2008 PGA 챔피언십 1R(02 : 00·SBS

골프)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행복이용원

서구 회정동 대주@후문 염주선정문앞
1급 모범업소·기술본위
대표 박 흥 수
☎(010)2626-9225

기운센천하장어

서구 생촌동 시영@옆
양념구이소금구이장어탕전문점에 이은
대표 정 인 속
☎(062)382-1764

강광진영어전문학원

북구 양산동 롯데슈퍼센터옆 기아지동차3층
파닉스(phonica) 4주무료특강(8.4~8.29)
☎(062)576-0512

청 해

서구 회정동 구제2동 모이티운정문건너
전복상게탕·대구탕·생태탕
전복의 관한 모든 것 단체 예약수님 한명
☎(062)382-8448

아마노코리아(주)광주지사

신안동 동에빌딩3층
주차관리시스템·출입통제시스템·출퇴근기록기
주차장 운영사업·고래관시스템 관리전문업체
☎(062)514-2277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찜

순천시 조례동 순천제일병원밀
대관령양푼이 동태찌개·찌전점
대표 김 옥 주
☎(061)725-6210

승암건설(주)

동구 산수동 경원빌딩 현대자동차영업소 6층
토공·철근콘크리트·상수도공사 전문업체
대표 박 상 호
☎(062)269-7878

오리랑야구장